

# 한용운 시의 ‘숭고’ 연구\*

- 시집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

한용국\*\*

## || 차례 ||

- I. 서론 및 연구사 검토
- II. 합일을 통한 무한성의 참여 추구
- III. 숭고한 표상으로서의 자연 인식
- IV. 자유의 부정성과 숭고의 역설
- V. 결론

## 【       】

본 연구는 한용운 시에 드러난 님과의 합일에 대한 열망과 그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숭고’라는 미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숭고는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시의 미학적 측면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님의 부재’라는 고통 속에서 ‘님’을 무한성의 초월적 실재로 상징하고 그 초월적 실재에 합일하려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폈다. 이를 통해 강렬한 파토스로서의 숭고를 지니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숭고한 표상으로서의 자연인식의 양상을 살펴 자연에 숭고한 표상을 부여하는 주체의 심적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주체는 자연에 숭고의 표상을 부여함으로써 ‘님’의 실재에 다가가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님에게 자연의 숭고한 표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신 속에 크고 높은 사유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정에서 체험될 수 있는 것이었음을 밝혔다. 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926)

\*\* 건국대학교

번째로 자유의 부정성과 숭고의 역설의 의미를 파헤쳐 보았다. 자유의 부정성과 숭고의 역설은 주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힘과 위안을 얻으며, 모순과 불일치로부터 솟아나는 숭고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밝혔다.

주제어 : 숭고, 합일, 표상, 자유, 역설

## 1. 서론 및 연구사 검토

한용운이 활동한 1920년대는 자유시와 함께 개인의 내면과 감정에 기초한 문학의 자율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동인지리는 특수한 양식의 문학운동 속에서 다양한 시적 기법이 시인들에 의해 시도되었고, 카프의 출범과 함께 전개된 사회주의 문학운동은 기법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시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서 전개된 민족주의 계열의 시들은 식민지를 극복하기 위해 성숙시켜야 할 고유한 이념형을 심층적으로 모색해나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한용운의 시인으로서의 위치는 특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민족 운동가이자 종교 활동가로서 식민지 치하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인 동시에 시인이었으나, 문단이라는 당대의 특수한 환경에 속해있지 않았던 독특한 위치로 인해 자신만의 시세계와 미학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한용운은 시인으로서 당대의 문학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의 환부를 시를 통해 드러낼 수 있었던 예외적 개인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용운의 ‘님’의 시학은 1920년대 시인들의 호명대상이었던 ‘님’과 같은 지평에 있으면서도, 그 지평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본다.

한용운의 시에서 ‘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논자들에게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조지훈<sup>1)</sup>은 ‘민족’으로 규정하였고, 조연

현<sup>2)</sup>은 '불타, 자연, 조국'의 복합체로 파악하였다. 김홍규<sup>3)</sup>는 분명하게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색과 실천 속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김재홍<sup>4)</sup>은 남을 '현실태, 기능태, 이념태'라는 의미항 속에 수렴하였고, 윤재근<sup>5)</sup>은 '자타불이의 관계이자 자타합일의 관계가 아닌' 존재론적 의미로 해석하였다. 구연상<sup>6)</sup>은 존재론적 해석에 더하여 불교의 심우도와 관련하여 님찾기의 과정을 구도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전개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좀 더 다양화 다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장철환<sup>7)</sup>은 주체와 '님'의 관계를 밝혔고, 정연정<sup>8)</sup>은 레비나스의 철학을 중심으로 '바다' 의식을 통해 님의 정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준섭<sup>9)</sup>은 『십현담』과 『십현담주해』와의 상호텍스트적 연구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맺기로 대응시켜 연구하였으며, 배호남<sup>10)</sup>은 레비나스의 타자성을 통해 님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은 '님'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에서 '님'과 '주체'의 관계와 태도를 규명하는 측면으로 진행되어온 경향

- 
- 1) 조지훈, 『한용운론』, 『시와 인생』, 박영사, 1959, p.153.
  - 2)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p.434.
  - 3) 김홍규, 『님의 所在와 진정한 역사』,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p.21.
  - 4) 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 일지사, 1982, p.89.
  - 5) 윤재근, 『만해시의 주제적 시론』, 문학세계사, 1953, p.363.
  - 6) 구연상, 『님의 침묵』에서의 '님 찾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 『존재론연구』 23호, 한국 하이데거학회, 2010, pp.171-206.
  - 7) 장철환, 한용운 『님의 침묵』연구 - 주체와 '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5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pp.231-250.
  - 8) 정연정, 『만해 한용운 시에 나타난 '바다' 의식 연구: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12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3, pp.159-188.
  - 9) 서준섭, 『한용운 『님의 침묵』과 『십현담』·『십현담주해』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현대문학연구』 42, 한국현대문학학회, 2014, pp.29-66.
  - 10) 배호남,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 연구 -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第68輯, 한민족어문학회, 2014, pp.101-128.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으로서의 ‘님’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 또한 여전히 한용운 시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측면이다. ‘님’의 성격 규명은 한용운의 시세계를 밝히는데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님’을 향한 주체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들이다. 대상으로서의 님과, 님을 향한 주체의 태도의 연구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한용운의 시세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근거에 놓인 것은 ‘님의 부재’라는 고통과 상실의 체험이다. 그 부재를 향한 태도와 극복의 과정이 바로 한용운의 시세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한용운의 시에서 님의 부재를 극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님의 부재를 확인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님의 부재를 부정하고, 님과 만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한용운의 시들은 주로 전자의 측면에 맞추어 연구되었다. 후자 또한 주로 님과 만나기를 열망하는 주체의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주체가 열망하는 님과 만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상황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체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님과의 합일과 그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숭고라는 미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숭고는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시의 미학적 측면을 규명하는데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롱기누스에 의해 촉발된 숭고는 이후 영국의 경험론과 독일의 관념론과 만나면서 숭고라는 독립적인 미의식으로 분기되어 나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리오타르, 하버마스 등과의 조우를 통해 아방가르드 미학과 결합하게 되었고, 시대적 전위로서의 미적 양식을 대표하는 미학이 되었다. 또한 미학 이론을 넘어서 역사적, 사회적 지평의 담론으로 확장 가능성 또한 모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현대시 연구에 있어 숭고에 중점을 둔 연구는 주로 미학적 영역에

서 현실에 대응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우선 대표적으로 조연정과 박현수, 이재복의 연구가 있다. 조연정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타나는 숭고의 이론을 통해 1930년대 후반기 억압적인 상황에서 지식인이라는 문학주체가 어떻게 윤리적 대응방식을 취했는가를 살피고 있다.<sup>11)</sup> 박현수는 칸트의 '불쾌-쾌'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일상과 의존관계에 있는 황홀이 아니라 특정 시공간에 고립된 황홀에 도착증적으로 집착하고 그것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과시즘 문인의 패착임을 밝히고 있다.<sup>12)</sup> 이재복은 「한국 현대시와 숭고」에서 운동주와 이육사의 시를 분석하면서 한국 현대시 해석에서 숭고의 개념이 미학의 한 원리를 이룰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 현대시의 숭고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숭고가 극대화되면 이데올로기의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늘 존재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숭고성이 형이상학적인 극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자연성'임을 밝혔다.<sup>13)</sup> 이외에 숭고에 대한 김동우, 윤의섭, 주영중, 박민규, 홍인숙 등<sup>14)</sup>의 연구가 숭고 논의를 풍부하게 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숭고가 시학으로서의 전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으며,

11) 조연정,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숭고' 연구 - 주체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2008.

12) 박현수, 「친일과시즘 문학의 숭고미학적 연구」, 『어문학』 104집, 한국어문학회, 2009.

13) 이재복, 「한국 현대시와 숭고」, 『한국언어문화』 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한국 현대시의 숭고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4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14) 김동우, 「롱기누스 숭고론의 시학적 전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윤지영, 「한국 현대시의 숭고 연구에 대한 탈근대적 검토」, 『현대문학이론연구』 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윤의섭, 「근대시에서 '숭고'의 위상」, 『현대문학이론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김접용, 「이육사 시의 숭고미」, 『한국시학연구』 17호, 한국시학회, 2006; 주영중, 「김수영 시론의 숭고 특성 연구」, 『비평문학』 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홍인숙, 「백석 시에 나타난 숭고의 양상」, 『비평문학』 4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박민규, 「백석 시의 숭고와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 23호, 한국시학회, 2008.

그 대상 시인으로 이육사, 윤동주, 백석, 김수영 등이 논의되면서 현대시의 송고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용운의 시를 송고의 관점에서 다룬 것으로는 김동우의 연구가 있다. “송고와 계몽의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한용운 시에 드러난 송고의 독특한 양상을 외부대상에 의한 송고가 아니라 주체 자신에 의한 사랑의 송고로서 계몽의 열정에 의한 근대의 주체의 확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만해시의 사랑은 대상과 이별함으로써 대상의 존재를 취하고, 사랑의 노래로 ‘님’의 침묵을 지키는 역설적인 방식임을 보여줌으로써 계몽과 송고의 역설적인 변증법을 드러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한용운 시의 ‘송고’가 규명되어야 할 하나의 이정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의 송고 논의들을 참고하면서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의 시편들에 드러난 송고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롱기누스와 버크 그리고 칸트의 송고가 시집에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하면서 특히 칸트의 송고론에 드러나는 주체의 내면적 태도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송고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한용운 시에서 님과 만나기를 열망하는 시적주체의 ‘송고’를 규명하는 기초가 되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한용운의 시를 192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성에 가두지 않고,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호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합일을 통한 무한에의 참여 추구

송고는 롱기누스<sup>15)</sup>와 버크<sup>16)</sup>에 의하면 자연의 거대한 사물이나 위대하고 높이 치솟은 문체에 의해 야기되는 경악에 가까운 감정으로 정의된다.

15) 롱기누스, 『롱기누스의 송고미 이론』, 김명복 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16) 에드먼드 버크, 『송고와 아름다움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김동훈 역, 마티, 2006.

위대하고 무한한 것이 숭고의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며, 그 대상으로부터 생겨나는 감정은 무이지경이나 경악과 같은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숭고가 자연의 사물이나 문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무한성이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나 문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버크는 불확실하거나 불명확한 것, 적극적인 실재성을 결여한 것을 숭고의 대상으로 보았고, 칸트는 숭고의 대상을 우리의 이념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어떤 종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것의 크기나 위력을 감지한 주체의 내면에서 촉발되는 상상력과 관계된 것이다. 칸트에게서 숭고는 대상에서 주체의 내면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의 ‘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숭고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님’은 주체에게 언제나 위대하고 무한한 존재로서 시집 전체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 ‘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재로서 존재하며, 부재중이지만, 주체에게는 부재하지 않는 존재로서 불명확한 적극적 실재성을 결여한 존재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주체의 내면에서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기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님의 얼굴을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적당適當한 말이 아닙니다. / 어여쁘다는 말은 인간人間 사람의 얼굴에 대한 말이고, 님은 인간人間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만치 어여쁜 까닭입니다. // 자연自然은 어찌하여 그렇게 어여쁜 님을 인간人間으로 보냈는지, 아모리 생각하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자연自然의 가운데에는 님의 짝이 될 만한 무엇이 없는 까닭입니다. // 님의 입술 같은 연꽃꽃이 어데 있어요. 님의 살빛 같은 백옥白玉이 어데 있어요. / 봄 호수湖水에서 님의 눈결 같은 잔물결을 보았습니까. 아름 별에서 님의 미소微笑 같은 방향芳香을 들었습니까. / 천국天國의 음악音樂은 님의 노래의 반향反響입니다. 아름다운 별들은 님의 눈빛의 화현化現입니다. // 아

아 나는 너의 그림자여요 너는 너의 그림자밖에는 비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너의 얼굴을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적당適當한 말이 아닙니다.

『너의 얼굴』<sup>17)</sup> 전문

시 『너의 얼굴』에서 너의 존재론적 성격의 일단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연에서는 “너의 얼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너의 얼굴이 “어여쁘다”는 말은 주체에게 적당하지 않다. 그것은 “인간 사람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너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치 어여쁜 까닭”이다. 예쁘다는 판단은 인간의 얼굴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너의 얼굴’은 그런 판단을 넘어선다. 어떤 비교도 성립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2연에서는 너의 근원이 밝혀진다. 바로 “자연”이다. 하지만 “너”는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 왜 그런가. “자연의 가운데에는 너의 짝이 될 만한 무엇이 없는 까닭”이다. ‘연꽃, 백옥, 봄호수의 잔물결, 아침별의 방향, 천국의 음악의 반향, 아름다운 별들’은 모두 아름다운 자연물이지만 그 어떤 것도 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를 인간으로 보낸 그 자연은 현상적 자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데아에 비견할 수 있는 어떤 근원으로서의 자연이다. 그것은 형상지어진 것이 아니라 형상 이전의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세계 자체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너는 근원에서 배태되었고, 이 세계는 너를 형상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그림자 밖에는 비길만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시구가 가능해진다. ‘너’는 ‘너’자체만을 비출 수 있으며 어떤 형상도 너의 본래적 모습을 형상화할 수 없다. 이러한 너의 존재는 칸트가 말한 바 “절대적으로 큰 것

17) 최동호 편, 『한용운 전집』, 서정시학, 2009,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함.



이란 그 자신과만 동일한 하나의 크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숭고는 자연의 사물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이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존재로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주체는 자신 또한 "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다. "님의 그림자"만이 "님"을 비출 수 있고, 내가 "님의 그림자"라면 나는 동시에 님과 동일한 존재인 것이다. 주체는 님을 만나기만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합일의 열망<sup>18)</sup>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님의 사랑은 강철鋼鐵을 녹이는 불보다도 뜨거운데, 님의 손길은 너머 차서 한도限度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서늘한 것도 보고, 찬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님의 손길같이 찬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국화 핀 서리 아침에 떨어진 잎새를 울리고 오는, 가을 바람도 님의 손길보다는 차지 못합니다./ 달이 적고 별에 빨나는 겨울밤에, 얼음 위에 쌓인 눈도 님의 손길보다는 차지 못합니다./ 감로甘露와 같이 청량淸涼한 선사禪師의 설법說法도 님의 손길보다는 차지 못합니다.// 나의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은 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끄는 수가 없습니다/ 님의 손길의 온도溫度를 측량測量할 만한 한난계寒暖計는 나의 가슴밖에는 아모 데도 없습니다./ 님의 사랑은 불보다도 뜨거워서, 근심 산山을 태우고 한恨 바다를 말리는데, 님의 손길은 너머도 차서 한도限度가 없습니다.

「님의 손길」 전문

시 「님의 손길」 또한 마찬가지다. 이 시에서 “님의 사랑”과 “님의 손길”

18) 심중숙, 「미야자와 켄지와 한용운 시의 비교연구 - 주체의 분열과 소멸, 복권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2005, p.150. 이러한 합일의 욕망을 심중숙은 라깡의 욕망이론에 비추어, 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상상계로, 현실을 그 사랑이 불가능한 상징계로 보고, 타자를 통한 결여의 충족으로 완전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합일의 욕망이 상상계의 거울단계에서 경험했던 완성의 기억과 결합하면서 동일시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님의 사랑”은 “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님의 근원적인 속성은 아니다. “님의 사랑”은 오히려 님과 관련되기 보다는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님의 사랑”은 님이 느끼기에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나”가 느끼기에 뜨거운 것이다. “님의 사랑은 강철을 녹이는 불보다도 뜨거운데”가 그것을 증명한다. 님의 감각이 아니라, 나의 감각인 까닭이다. 시에서 님의 속성으로 제시되는 것은 “님의 손길은 너머 차서 한도가 없다”에서 볼 수 있듯이, “차가움”이다. 그것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차가움”이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은 “님의 손길”이 지닌 차가움을 형상화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국화 핀 서리 이층에 떨어진 잎새를 울리고 오는 가을바람”, “달이 적고 별에 빨나는 겨울밤에 얼음 위에 쌓인 눈”은 아름다운 자연의 생생하고도 차가운 감각이지만 “님의 손길”이 지닌 “차가움”에는 비교되지 않는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 할지라도 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며, 님은 그 자연을 초월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감로와 같이 청량한 선사의 설법”까지도 “님의 손길”의 “차가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시는 말하고 있다. “감로와 같은 선사의 설법”은 자연 혹은 세계의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서 불교적 깨달음의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님의 손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님”이 깨달음으로조차도 형상화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님의 손길”만이 “나의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을 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나의 작은 가슴”이 바로 “님의 손길”과 같은 속성을 가졌음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님의 손길”에 “나의 가슴”의 불꽃이 꺼진다는 것은 단순히 님과의 만남을 넘어서 님과 합일된 상태에 이르러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님이여, 당신은 백번百番이나 단련鍛鍊한 금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珊瑚가 되도록 천국天國의 사랑을 받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 별의 첫결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義가 무겁고 황금黃金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발에 복福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光明과 평화平和를 좋아하십니다./ 약자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慈悲의 보살菩薩이 되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에 봄바람이여.

『찬송』 전문

님의 사랑은 위의 시 『찬송』에 따르면 일종의 무한성의 표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동시에 현실에서마저도 초월적인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한성이다. 그 무한성은 “백번이나 단련한 금결”에 비유되며,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신” 전인성을 표상하고,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는” 성스러움을 가진 존재로 변용되어 드러난다. 그 무한성의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아침 별의 첫결음”처럼 신선하고, “옛 오동의 숨은 소리”처럼 깊으며, “얼음바다에 봄바람”처럼 따스하다.

1연에서 ‘님’의 무한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님’이 이미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준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다. 그 사랑은 2연에서 “거지의 거친 발에 복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은 현실의 기율이 아니다. 거지가 원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황금일 것이다. 하지만 님은 거지에게마져 “황금”과 “의”의 역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3연에서 “님의 사랑”은 보살행으로 드러난다.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읍소서라는 기원 또한 역

설을 품고 있다.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상태로 누릴 수 있는 “봄과 광명과 평화”지, “보살의 눈물”이 아니다. 하지만 “님의 사랑”은 “눈물”만으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님과의 합일을 통해 이루어내고 싶은 열망인 것이다. 그 합일은 세속의 유한성을 넘는 어떤 무한에의 참여의지를 동반하고 있다.

이렇듯 한용운의 시들의 주체는 ‘님의 부재’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님’을 무한성의 초월적 실재<sup>19)</sup>로 상정하고 그 초월적 실재에 합일하려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민, 슬픔,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적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 “신의 정신적 위대성” 가까이로 우리를 높여 줄 수 있는 찬탄의 대상으로 주체에게 ‘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것을 초월적 신성의 열망으로서의 숭고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롱기누스는 숭고의 감정을 일으키는 말의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큰 것을 만들어 내는 생각, ② 강렬하고 신들린 파토스, ③ 특정한 말무늬, ④ 고상한 말씨, ⑤ 위엄있고 명료한 구성<sup>20)</sup>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큰 것을 만들어 내는 생각’이다. 그것은 일종의 무한성과 초월성에의 합일의지인 것이다. 한용운의 시들에 드러나는 ‘님’은 부재함으로써 오히려 ‘무한성’과 ‘초월성’을 표상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또 주체는 그런 존재인 ‘님’과의 합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롱기누스가 말한 바 ‘강렬하고 신들린 파토스’가 가능해진다. 롱기누스 숭고론의 핵심이 소멸하는 유한자의 세계를 벗어나 신들린 듯한 감정으로써 높은 세계의 신성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한용운의 시적 주체는 시 『님의 침묵』에서 보이듯 “님의 침묵”을 감싸고 도는 “노래”로서 그 파토스

19) 김재홍은 ‘님’을 불교적 관점에서 ‘법신의 현현’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김재홍, 『님의침묵』, 일조각, 1974, p.32.

20) 김상봉, 『롱기누스와 숭고의 개념』, 『나르시스의 꿈』, 한길사, 2002, pp.90-91.

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숭고한 표상으로서의 자연인식

칸트는 숭고는 어떤 대상이기 보다도, 압도적인 것의 크기나 위력을 감지한 주체의 내면에서 촉발되는 상상력과 관계되는 용어라고 말하고 있다. “참된 숭고성이란 오직 판단자의 심의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이요, 자연물의 판정이 심의의 그러한 상태를 유발한다고 해서 자연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숭고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의 내부에서만, 그리고 자연의 표상에 숭고성을 끌어넣는 우리의 심적 태도에서만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sup>21)</sup>는 것이다.

한용운 시에서의 자연이 님의 무한성을 표상할 수 없는 대상임을 앞에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한용운 시에서 자연은 숭고한 표상을 부여받고 있다. 한용운 시에는 수사적 역설이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김재홍은 한용운 문학을 연구하면서 내용 구조에 의한 세 가지 역설을 말한 바 있다. 그것은 수사적 역설, 의지적 역설, 관념적 역설이다.<sup>22)</sup> 하지만 숭고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인식론적 차원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용운의 시의 주체는 표상할 수 없다고 인식되는 대상에 오히려 숭고한 표상을 부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님의 무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

21) 이마누엘 칸트, 김상현 역, 『판단력 비판』, 책세상, 2005, p.83.

22) 김재홍, 『한용운 문학 연구』, 일지사, 1992, p.194.

외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 의 고요한 하늘을 슬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  
 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  
 꽃 같은 발꿈치로 갯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  
 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  
 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알 수 없어요」 전문

시 「알 수 없어요」는 ‘님’이 자연이 표상으로는 드러날 수 없는 존재이지  
 만 결국은 자연의 표상을 통해서만 그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바람 없는 날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그 자체로 생명의 순환을 나타  
 내며, 장마 끝에 물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비치는 푸른 하늘 또한  
 순환하는 삶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깊은 나무에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향기는 생명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원으로서의 힘이며, 근원  
 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시내는 모든  
 생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  
 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삶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  
 히 이 시에서 연꽃과 옥은 님이 가진 생명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물로 표상되며, 초월자로서의 님은 ‘바다를 밟고’, ‘하늘을  
 만지는’ 거대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sup>23)</sup> 그것은 각각 ‘님’의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 시”로 대응되고 있다. 시에서는 “누구입니까”라는 의문형으로

23) 심종숙, 같은 논문, p.50.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님'임은 다른 시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것이다. 즉 시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연의 비유들은 모두 님을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다음 연의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역설적 표현은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 순환을 품고 있는 역설<sup>24)</sup>이다. 타고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과 비약을 통한 역설로 제시하고 있다. 자연을 통해 님을 형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님은 무한이자 초월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님과 합일하기 위해서 주체는 끝없이 님을 열망해야만 한다. 그 열망으로 인해 주체는 생략과 비약이라는 수사적 역설을 통해 자연에 숭고의 표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층에 일어나서 세수하라고 대야에 물을 떠다 놓으면, 당신은 대야 안의 가는 물결이 되어서, 나의 얼굴 그림자를 불쌍한 아기처럼 얼려줍니다. // 근심을 잊을까 하고 꽃동산에 거닐 때에, 당신은 꽃 새이를 슬며치오는 봄바람이 되어서, 시름없는 나의 마음에 꽃향기를 묻혀주고 갑니다. // 당신을 기다리다 못하여 잠자리에 누웠더니, 당신은 고요한 어둔 빛이 되어서, 나의 잔부끄럼을 살뜰히도 덮어 줍니다. // 어테라도 눈에 보이는 테마다 당신이 계시기에, 눈을 감고 구름 위와 바다 밑을 찾아 보았습니다. // 당신은 미소微笑가 되어서 나의 마음에 숨었다가, 나의 감은 눈에 입맞추고 「네가 나를 보느냐.」고 조롱嘲弄합니다.

「어테라도」 전문

24) 김현자, 『시와 상상력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82, p.119. 김현자는 이 순환의 구조를 “탄생-생성-소멸-재탄생”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이 시가 깊은 의미에서 순환과 재생의 원형을 노래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한용운의 시들이 인간 생명의 격양된 상태에서 불멸하는 사물들의 이미지를 통해 그 사물들의 순환운동을 드러냄으로써 무한한 존재의 확대와 끊임없는 삶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체는 자신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자연현상들에서 님의 흔적을 찾고자 한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기 위한 대야 안의 물결에서도 님을 찾고, 꽃동산을 거닐다 맞는 봄바람에서 맡는 꽃향기에서도 님을 찾는다. 님을 찾는 행위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쉴 사이 없이 계속된다. 그리하여 잠들기 전의 고요한 어둔 빛에서도 님을 찾는 것이다. 님을 찾는 주체는 불쌍한 아기이며, 시름없는 마음이며, 잔부끄럼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주체가 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님은 “어데라도 눈에 보이는 데마다” 계시는 존재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주체는 님을 찾는다. “눈을 감고 구름 위와 바다 밑을 찾아보았습니다”에서 ‘구름 위와 바다 밑’은 의식의 영역으로는 볼 수 없는 무의식의 꿈의 영역을 드러내는 자연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크기를 잴 수 없는 자연의 형상으로서 절대적으로 크고 무한한 공간이다. 심지어 그 곳에도 님은 존재하고 있다. 거기서 님은 “미소가 되어 나의 마음에 숨었다가, 나의 감은 눈에 입맞추어 준다. 하지만 마지막에 님은 말한다. “네가 나를 보느냐”가 그것인데, 화자는 그것을 ‘조롱’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체로서의 ‘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체가 자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연의 표상에 님의 숭고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실체로서의 님은 아니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님’이 없는 세계에서 ‘님’을 보는 것은, ‘꿈’에 실체를 부여하는 행위와도 같다.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무 그늘 새이에서 산보할 때에, 나의 꿈은 적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니다.// 당신이 여름날에 더위를 못이기여 낮잠을 자거든,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당신의 주위周圍에 떠돌았습니니다.// 당신이 고요한 가을 밤에 그윽히 앉아서 글을 볼 때에, 나의 꿈은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귀똥귀똥」 울렸습니니다.

「나의 꿈」 전문



님이 “맑은 새벽에 나무 그늘 새이에서 산보할 때”에나, “여름날에 더위를 못이겨 낮잠을 잘” 때, “고요한 가을밤에 그윽히 앉아서 글을 볼 때”, “나의 꿈”은 “적은 별”이 되어 그들을 밝혀주고, “맑은 바람”이 되어 시원하게 해 주며, “귀뚜라미”가 되어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기를 주체는 원하고 있다. 여기서 주체가 ‘나’가 아니라 “나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체로서의 ‘나’는 끝내 당신을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체가 아니며, 어떤 자연 현상으로도 규명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만날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합일의 상태를 열망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숭고한 표상을 부여함으로써 끝없는 만남을 시도한다. 그 시도는 끝내 주체를 다른 층위로 비약시킨다. 그것이 바로 “꿈”이다. “꿈”은 생명현상의 하나이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기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시 『꿈이라면』에서 “사랑의 속박束縛이 꿈이라면 / 출세出世<sup>1)</sup>의 해탈解脫도 꿈입니다. /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 무심無心의 광명光明도 꿈입니다. / 일체만법一切萬法이 꿈이라면 / 사랑의 꿈에서 불멸不滅을 얻었습니다.”에서 보이듯, 아예 현실을 꿈과 동일한 층위에 놓아버리기도 한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라면 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열망이다. “별과 바람과 귀뚜라미”는 그렇게 꿈 속에서마저도 ‘님’에 대한 비유와 동일하게 ‘주체’에게도 숭고성을 부여하는 자연물의 표상이 된다. ‘꿈’은 시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상대성이 들어설 수가 없다. 한용운의 시에서 꿈은 숭고를 불러 일으키는 표상으로서의 자연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연은 “하늘에는 달이 없고, 땅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 사람들은 소리가 없고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 우주는 주검인가요 / 인생은 잠인가요”(『고적한 잠』)에서 보이듯 상대성이 아닌 절대성을 부여받고 있다.

당신의 얼굴은 봄 하늘의 고요한 별이여요. / 그러나 찢어진 구름 새이로  
 돌아 오는 반달 같은 얼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만일 어여쁜 얼굴만을 사랑  
 한다면, 왜 나의 벼갯모에 달을 수놓지 않고 별을 수놓아요 // 당신의 마음은  
 티 없는 숫옥玉이여요. 그러나 곱기도 밝기도 굳기도, 보석 같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만일 아름다운 마음만을 사랑한다면, 왜 나의 반지를 보석으  
 로 아니하고, 옥으로 만들어요 // 당신의 시詩는 봄비에 새로 눈트는 금金결  
 같은 버들이여요. / 그러나 기름 같은 바다에 피어오르는, 백합百合꽃 같은 시  
 詩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만일 좋은 문장文章만을 사랑한다면, 왜 내가 꽃을  
 노래하지 않고, 버들을 찬미讚美하여요 // 원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  
 할 때에, 당신만이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 나는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야요.  
 「「사랑」을 사랑하야요」 전문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에 아름답고 숭고한 표상이 부여된다. 하지  
 만 다른 시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연에서 당신의 얼굴은 봄 하늘  
 의 고요한 별로 비유된다. 하지만 다른 얼굴이 있다. 그것은 “찢어진 구름  
 새이로 돌아 오는 반달 같은 얼굴”이다. 그것은 시에 따르면 “어여쁜” 얼굴  
 이다. 하지만 그 어여쁜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지, ‘님’의 얼굴이 아니다. 시  
 『님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처럼 님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주체는 달이 아니라 별을 수놓는다

2연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마음은 숫옥에 비유되었다. 하지만 다른  
 보석 같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반지를 옥으로 만든다.

3연에서는 “당신의 시”를 말한다. 그것은 봄비에 새로 눈트는 금결 같은  
 버들이다. 하지만 기름 같은 바다에 피어오르는 백합꽃 같은 시도 있다.  
 그러나 백합꽃 같은 시는 좋은 문장일 뿐이다. 그래서 꽃이 아니라 버들을  
 찬미한다. 이 세 연에서 나타나는 ‘별, 숫옥, 버들’과 ‘반달, 보석, 백합’을

생각해 보자. 전자는 시에서 후자보다 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드러난다. 그러나 주체는 님을 아름답고 화려한 것에서도 보지만, 그에 비해 소박하고 수수한 것에서도 목격한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지 소박하고 수수한 것은 외면한다. 그러나 바로 '님'만이 소박하고 수수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님의 사랑'을 사랑한다. '님'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주체에 대한 '님의 사랑'과 "님의 사랑"의 무한성이 소박하고 수수한 것에도 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 즉 숭고의 표상을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숭고는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sup>25)</sup>이다. 칸트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자연의 크기와 힘을 숭고한 대상으로 보고 숭고한 감정은 이에 맞서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저항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파악<sup>26)</sup>했다. 숭고는 어떤 큰 대상이기보다도, 압도적인 것의 크기나 위력을 감지한 주체의 내면에서 촉발되는 상상력과 관계되는 용어<sup>27)</sup>인 것이다. 시집 『님의 침묵』의 시들에서 상상력은 “주관과 객관, 현실과 이상, 감각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결합시켜 주고 우주를 감지하게 하며 자아를 창조하는 힘”이자 “반대명제와 모순을 통일하고 해결하는 힘”으로서, 외적인 자연과 내적인 자아를, 시간과 영원을, 물질과 정신을, 유한성과 무한성을,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을 화해시키고 통합하는 힘<sup>28)</sup>으로 발현된다. 님의 부재는 압도적인 부정적 숭고체험에 해당한다. 그 체험 속에서 주체는 부정적 감정인 불쾌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님”과 합일을 추구하

25) j.메중너브, 김용민 역, 『감정』, 한길사, 1999, p.34.

26) 칸트, 이석윤 역, 『판단력 비판』, 박영사, 2005, p.129.

27) 박민규, 앞의 논문, p.197.

28) W.Wordsworth, *Preface to the Lyrical Ballad*, *Wordsworth 'Literary Criticism*, ed, N.C. Smith, Oxford, 1964, pp.15-16.

는 과정에서 그 불쾌의 감정은 쾌의 감정으로 전환된다. 즉 송고는 압도적인 대상을 생각할 수 있는 더 큰 사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한 마음상태에서 체험되는 것이다. 한용운 시에서의 송고는 '님'에게 상상력을 통해 자연에 송고한 표상을 부여하는 과정, 즉 주체의 내면이 지향하는 송고를 자연의 표상에 투영한 것으로서, 자신 속에 그 크고 높은 사유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체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자유의 부정성과 송고의 역설

님과 나의 합일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면 할수록 님의 부재는 더 강하게 느껴진다. 특히 한용운 시에서 님의 부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다. 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단순히 님이 없다는 사실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게 고통과 억압까지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 억압은 님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억압인 동시에, 님의 부재로 인해 더 크게 느껴지는 고통과 억압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그 억압은 님의 부재를 부정하면 할수록 더욱 배가되기까지 한다. 이는 당대의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자체로 하나의 송고체험이 된다. 특히 당시 일제 식민 지배하의 자유를 박탈당한 부정적 억압상황은 일종의 저항의지로서 내면의 송고체험을 유발하는 충분조건<sup>29)</sup>이 되고 있기까지 하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秋收가 없습니다. /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主人은 「거지는 인격人格이 없다. 인격人格이 없는 사람은 생명生命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罪惡이다.」고

29) 김동우, 앞의 논문, p.515.

말하셨습니다./ 그 말은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民籍 없는 자者는 인권人權이 없다. 인권人權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貞操냐.」하고 능욕凌辱하라는 장군將軍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變化하는 찰나刹那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원갓 윤리倫理, 도덕道德, 법률法律은 칼과 황금黃金을 제사祭祀지내는 연기烟氣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永遠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역사人間歷史의 첫 폐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전문

주체는 당신이 가신 뒤로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는 ‘나를 위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처해있는 비참한 상황 때문이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다.” 그래서 저녁거리를 위하여 이웃집에 갔더니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비난을 듣고 돌아온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나는 당신을 본다. ‘거지-인격-생명’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연쇄는 그 억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두 번째 연에서도 마찬가지다.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도 없어서 주체는 장군에게 “민적 없는 자는 인권도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는 능욕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 장군에게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변화하는 찰나”에 주체는 당신을 본다. ‘민족 없음-인권 없음-정조유린’은 님의 부재로 인해 겪는 억압 때문에 주체가 직면한 위급함을 나타낸다. 그에 항거하면서 주체는 격분과

함께 비애를 동시에 느낀다. 그것은 “님의 부재”라는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비애다.

그리하여 “원갓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깨닫는다. ‘님의 부재’라는 상황은 세계의 윤리적 기율을 모두 전도시켜 버렸다. 윤리, 도덕, 법률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억압과 구속의 도구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 전도된 상황 속에서 주체는 절망한다. 그리하여 죽음과 도피를 꿈꾸고 타락의 길로 들어설까 망설일 때에 또 당신을 목격한다. 주체가 님과의 합일을 열망할 때, ‘님’은 언제나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억압으로 괴로워할 때 ‘님’은 자연의 비유가 아니라, ‘님’ 자체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주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님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억압은 주체가 ‘님의 부재’를 인정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 시에 나타난 것처럼, ‘죽음과 도피, 타락’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님의 부재를 인정하고 더 이상 님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고통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님의 부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억압은 더욱 강하게 주체에게 작용하는 것이다.

나는 선사禪師의 설법說法을 들었습니다./「너는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苦痛을 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질거우리라.」  
고// 그 선사禪師는 어지간히 어리석습니다./ 사랑의 줄에 묶이운 것이 아프기는 아프지만, 사랑의 줄을 끊으면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픈 줄을 모르는 말입니다./ 사랑의 속박束縛은 단단히 얽어매는 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해탈大解脫은 속박束縛에서 얻는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얽은 님의 사랑의 줄이 약할까 버서, 나의 님을 사랑하는 줄을 곱들였습니다.

「선사의 설법」 전문

선사는 말한다.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을 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즐거우리라.” 선사의 말은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그것이 불교의 연기론이다. 주체에게 고통의 원인은 바로 님에 대한 사랑이자, ‘님의 부재’에 대한 부정이다. 그러므로 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사랑의 줄’을 끊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체는 선사가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사랑의 줄에 묶인 것이 아프기는 해도 사랑의 줄을 끊으면 더 큰 고통이 생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욱 사랑의 속박에 얽매이는 것이 덜 고통스러운 것이다.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불교 논리적 역설이다. “결정론에 반대해서 불교도들은 자유의지와 의무를 주장한다. 자유에 반대해서 그들은 인과법칙의 가장 엄격한 필연성을 주장한다. 불타는 필연성, 즉 인과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응보의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는 역설적 명제를 주장”하는 것이다.<sup>30)</sup> 이는 속박이라는 상황에서 도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역설이다. 그 참여를 통해 자유를 느낄 수 있을 때, 속박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게 된다. 속박의 내부에서 속박의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 바로 대해탈인 것이다. 그래서 주체는 오히려 님의 사랑의 속박이 약해질까봐 사랑의 줄을 배가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간다. 자유의 부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30) 테오도르 체르바츠키, 『불교논리학』, 임옥균, 진현중 역, 경서원, 1992, p.216.

철학哲學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伊太利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연애戀愛가 자유自由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自由에 알뜰한 구속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니3)는 해 저문 별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羊이 기루어 서 이 시詩를 쓴다.

『군말』 전문

시 『군말』에서는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석가에게는 중생이, 칸트에게는 철학이, 장미화에게는 봄비가, 마시니에게는 이태리가 다 님에 해당한다. 그 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님 또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님과 사랑이 자유라면 님 또한 자유로운 존재다. 하지만 다음 행에서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축어적으로 시의 문맥을 따라가자면 사랑은 자유를 낳고 그 자유는 구속을 낳는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 연쇄는 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다. 님의 사랑과 너희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너희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만 욕망일 뿐이다. 첫 행의 “기룬”은 “그리운”을 뜻한다. “그리운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에 해당한다. 욕망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욕망은 집착과 속박을 낳는다.

그래서 시는 “너에게도 님이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의 사랑이 ‘님에 대한’ 사랑인지, ‘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



인지를 묻고 있다. “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일 뿐이다. 님의 사랑은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도 존재하며, 즐거움이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까지도 함께하는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그 사랑은 모든 분별을 넘어선 경지의 사랑인 것이다. “님의 너의 그림자”라는 것은 ‘네’의 욕망, 즉 주체의 욕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랑은 그러므로 혼한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며, 상식적인 자유의 의미를 넘어서는 사랑이다. 그것은 세속적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는 사랑이어야 하며, 나의 욕망의 대상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너희는 “해 저문 별관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양”이 된다. 어린양은 “이름 좋은 자유”에 구속된 존재들이다. 바로 그 “이름 좋은 자유”를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주체가 오히려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름 좋은 자유”를 추구할수록 진정한 자유의 획득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지척이 말한 바, “숭고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불가능성 자체를 표상이 사물을 탐색하는 데서 마주치는 항구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다. 따라서 표상의 이러한 실패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진정한 차원을 감지할 수 있다”는 숭고의 역설과도 같은 것이다. 또 이러한 부정성은 “불가항력적으로 현상의 세계에서 이념의 세계로, 조건적인 것에서 무조건적인 것으로 내몰린 주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힘과 위안을 얻게 되고, 모순과 불일치로부터 솟아나는 숭고한 자유”<sup>31)</sup>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31)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훈서적, 2004, pp.146-148.

## V. 결론

지금까지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시편들을 통해 한용운 시에 드러나는 숭고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한용운의 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층위와 각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주로 ‘님’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님’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서 ‘님’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밝히는 데로 진행되면서 『님의 침묵』의 전모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 연구들의 근거에 놓인 것은 ‘님의 부재’라는 고통과 상실의 체험이다. 그 부재를 향한 태도와 극복의 과정이 바로 한용운 시세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체가 열망하는 님과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상황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체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님과의 합일에 대한 열망과 그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숭고라는 미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시편들에는 님과의 합일을 통한 무한의 질서에 대한 참여의 열망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 「님의 얼굴」, 「님의 손길」, 「찬송」을 분석하였다. 「님의 얼굴」에서는 님은 인간의 척도로는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체가 알고 있지만, 주체가 “님의 그림자여요”라는 시적 진술을 통해 님과의 합일을 열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님의 손길」에서는 자연의 비유로는 측정할수 없는 존재이지만, “님의 사랑”만이 “나의 가슴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다는 진술에 자신 또한 님과 같은 속성을 배태하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내포하면서 그 열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였다. 「찬송」은 “님의 사랑”이 영원한 불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주체가 님과의 합일을 통해 이루어내고 싶은 것임을 밝혔다. 이 시편들을 통해 ‘님의 부재’라는 고통 속에서 ‘님’을 무한성의 초월적 실재로 상정하고

그 초월적 실재에 합일하려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피고, 그것이 숭고의 강렬한 파토스를 지닌 것임을 규명해 보았다.

두 번째로 숭고한 표상으로서의 자연인식의 양상을 살폈다. 「알 수 없어요」, 「어테라도」, 「나의 꿈」, 「『사랑』을 사랑하야요」의 시들을 살펴 자연에 숭고한 표상을 부여하는 주체의 심적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고구해 볼 수 있었다. 임은 자연의 비유로는 표상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주체는 자연에 숭고의 표상을 부여함으로써 '님'의 실재에 다가가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숭고는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한용운의 시들은 압도적인 부정적 숭고 체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체는 부정적 감정인 불쾌를 경험하게 되지만, 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면서, 자연에 숭고한 표상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쾌의 감정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님에게 자연의 숭고한 표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신 속에 크고 높은 사유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정에서 체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자유의 부정성과 숭고의 역설이 한용운의 시들에 어떻게 드러나는 지 살펴 보았다. 님의 부재는 주체에게 고통과 억압의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그것은 님의 부재를 부정하면 할수록 더욱 배가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숭고체험이 되는 것이었다.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분석하면서 '님의 부재'라는 상황은 세상의 윤리적 기율을 전도시키는 상황을 유발했으며, '님의 부재'가 고통과 억압으로 작용할 때, 오히려 님은 자연의 표상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직적성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합일의 열망보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님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했다. 님의 부재를 부정하기를 멈추는 것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사의 설법」은 님의 부재를 부정하는 것

이 집착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향한 길임을 주체가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 시집의 서문격인 군말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시 『군말』에서는 ‘님의 사랑’이 ‘이름뿐인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품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일종의 숭고의 역설이라고 할 수 것으로 자유의 부정성을 통해 주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힘과 위안을 얻으며, 모순과 불일치로부터 솟아나는 숭고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밝혔다.

한용운 시들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숭고의 계기들을 충분히 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님’이라는 대상 자체가 이미 ‘숭고’한 것으로서 선형적 내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미학적 계기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숭고는 이제 갓 출발선상에 서 있을 뿐이다.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용운 시의 숭고 미학이 미적 근대성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꾸준히 밝혀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최동호 편, 『한용운 전집』, 서정시학사, 2009.  
김상봉, 『나르시스의 꿈』, 한길사, 2002.  
김재홍, 『한용운 문학 연구』, 일지사, 1992.  
김홍규,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 일지사, 1982.  
안성찬, 『승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윤재근, 『만해시의 주제적 시론』, 문학세계사, 1953.  
조지훈, 『시와 인생』, 박영사, 1959.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 룽기누스, 『룽기누스의 승고미 이론』, 김명복 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리오타르, 장 프랑소와, 『칸트의 승고미에 대하여』, 김광명 역, 현대미학사, 2002.  
에드먼드 버크, 『승고와 아름다움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김동훈 역, 마티, 2006.  
J. 메종너브, 김용민 역, 『감정』, 한길사, 1999.  
이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김상현 역, 책세상, 2005.  
테오도르 체르바츠키, 임옥균, 진현종 역, 『불교논리학』, 경서원, 1992

### 2. 논문

- 구연상, 『님의 침묵』에서의 '님 찾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 『존재론연구』 23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10.  
김점용, 『이육사 시의 승고미』, 『한국시학연구』 17호, 한국시학회, 2006.  
김동우, 『룽기누스 승고론의 시학적 전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김동우, 『개항기 및 식민지 초기 도시 경험의 내면화 과정』, 『서울학 연구』, 2010.  
김동우, 『승고와 계몽의 역설 - 한용운 시의 현재성』, 『한국시학연구』 24호, 2009.  
박민규, 『백석 시의 승고와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 23호, 한국시학회, 2008.  
박현수, 『친일파시즘 문학의 승고미학적 연구』, 『어문학』 104집, 한국어문학회, 2009.  
배호남,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 연구 -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중심

- 으로, 『韓民族語文學』 第68輯, 한민족어문학회, 2014.
- 서준섭, 『한용운 『님의 침묵』과 『십현담』·『십현담주해』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현대문학연구』 42, 한국현대문학회, 2014.
- 심중숙, 『미야자와 켄지와 한용운 시의 비교연구 - 주체의 분열과 소멸, 복권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2005.
- 이재복, 『한국 현대시와 송고』, 『한국언어문화』 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 이재복, 『한국 현대시의 송고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4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 윤지영, 『한국 현대시의 송고 연구에 대한 탈근대적 검토』, 『현대문학이론연구』 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 윤의섭, 『근대시에서 ‘송고’의 위상』, 『현대문학이론 연구』 5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 장철환, 『한용운 『님의 침묵』연구 - 주체와 ‘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5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 정연정, 『만해 한용운 시에 나타난 ‘바다’ 의식 연구: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12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3.
- 조연정,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송고’ 연구 - 주체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2008.
- 주영중, 『김수영 시론의 송고 특성 연구』, 『비평문학』 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 홍인숙, 『백석 시에 나타난 송고의 양상』, 『비평문학』 4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sublime' by Han Yong-un's poem

Han, Yong-guk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subject desire for unity with Nim in Han Yong-un's poem from the aesthetic perspective of 'sublime'. The 'sublime'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interest in identifying the aesthetic aspects of poetry. In this study, firstly, in the suffering of the absence of Nim's existence, we have looked at the transcendent reality of infinity and have shown that the subject shows a desire to unite in transcendental reality.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at it possesses sublime as intense Patos. Secondly, I looked at the aspect of nature recognition as a sublime representation, and examined what kind of psychological attitude of the subject gives a sublime representation to nature. The subject was able to express its desire to approach the reality of Nim by giving nature a representation of sublime. it revealed that the subject could be experienced at a path that showed that he had a large and high capacity of reason in the process of giving 'Nim' a sublime representation of nature. Third, I have explored the meaning of the negativity of freedom and the paradox of spirituality. The negativity of liberty and the paradox of sublime is that the subject can discover human beings as free and independent moral beings, get strength and comfort, and experience sublime freedoms that arise from contradictions and disagreements.

Key Word : sublime, unity, symbol, freedom, paradox

한용국

소속 : 건국대학교

전자우편 : calliid@naver.com

이 논문은 2018년 7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9월 7일 게재 확정됨.